

담양고 4년 연속 과학전람회 제패

김승철교사 지구과학부문 최우수상 수상

담양고등학교(교장 신종식)가 4년연속 '전국 과학전람회'를 제패했다. 6일 담양고에 따르면 지난 2008·2009년 특상, 2010년 대상에 이어 최근 국립 중앙과학관에서 열린 '제57회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김승철 교사가 지구과학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에서 세립질 퇴적물의 침전 속도에 따른 입자의 크기 정도를 분석, 퇴적 환경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담양고는 지난 2006~2010년 5년간 중부지역 과학교육 선도 시범학교로서 새로운 과학교육 방법과 지역 과학문화 보급에 앞장서 실천해왔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9일 국립 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열린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h17@

나주축협 대형마트 추진 '시끌'

롯데마트 입점 신청 이어... 영세 상인들 상권 붕괴 반발

"하나로 마트 있는데... 중복투자" 농협도 중앙회에 탄원

나주 축산농협의 '하나로 마트' 사업 진출을 놓고 나주시 지역 소상공인들과 같은 계통의 인근 농협이 축협을 끈두세우고 있다.

6일 나주농협과 지역 소상공인들에 따르면 지난 6월 롯데마트가 나주 입점을 추진, 현재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지역 영세상인들이 동네상권 붕괴를 우려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주 축산농협도 최근 성북동 41-1번지 일대 2100여평 부지에 1400여평의 건물을 50여억원 들여 신축, 400여명 이상되는 대규모 '마트'신설을 추진하자 이번에는 인근 나주농협이 발근하고 나섰다.

나주농협은 현재 나주시 송월동에 서 '하나로 마트'를 운영 중인 상태로 동일한 사업권역에서 같은 계통의 축산농협이 마트 사업에 중복 진출하는 것은 나뉘먹기식으로 결국 경영악화가 초래돼 공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

나주농협 관계자는 "축협이 지역 영세상인을 자극하면서까지 무리한 고정투자를 하고 있다고 판단, 축산농협의 마트사업 진출을 반대하는 2047명의 탄원서를 농협 중앙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로 나주 축산농협이 마트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권은 나주농협 마트와는 불과 1km 미만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중소도시의 특성상 출몰

경이 불가피한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롯데마트까지 입점할 경우 동일한 상권인 급남동과 송월동, 성북동 일원의 인구가 불과 2만명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결국 무리한 투자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인 A씨(48·나주시 성북동)는 "농협 마트가 그동안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기보다는 공산품 판매에 치중했던 만큼 지역 영세상인은 농협 마트 때문에 설자리가 없게 됐다"며 축산농협의 마트사업 진출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대해 나주 축산농협 관계자는 "상당수 소비자가 가격경쟁 등을 감안해 축협마트 신설을 원하고 있다"며 "조만간 컨설팅 결과가 나온 뒤 농협 중앙회가 이를 근거로 승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최승철기자 srchoi@



추석명절을 앞두고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시설하우스에서 멜론 수확이 한창이다. 담양산 멜론은 국제 표준규격인 ISO9001(품질경영)과 ISO14001(환경경영) 인증을 동시에 받았다. <담양군 제공>

새 얼굴

서민 보호·민생 민원 최우선 해결

배재덕 광주지검 장흥지청장



"지역사회 각계 각층과 검찰 내부의 소통으로 검찰의 신뢰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5일 부임한 배재덕(45) 광주지검 장흥지청장은 "서민 보호를 위해 민생 민원처리에 인력을 최우선 배려하는 검찰업무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배 지청장은 "지역정서를 해치는 고질적인 토착형 부정부패는 단호히 뿌리 뽑아 밝고 맑은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

는 포부를 밝혔다. 부산 출신인 배 지청장은 부산대를 졸업, 지난 1994년 사시 36회(연수원 26기)에 합격한 후 1997년 서울 동부지검을 시작으로 서울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 등을 역임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강진 마을기업 1호 '모정한과' 개업

모시잎 송편·한과 등 전통먹거리 생산 본격 영업

강진군 첫 마을기업이 문을 열고 모시잎 송편과 한과 등 전통 먹거리 생산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강진군은 성전면 영풍리에서 강진군 마을기업 1호 '모정(母情)한과'(대표 김영민 부회회장)의 한과제작 체험장인 '해랑 달이랑 체험관'을 개관했다. 성전면 신동마을 부녀회원 14명이 공동 참여하고 있다.

마을기업은 향토·관광·문화·자연 자원 등 지역 자원에 기반을 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주민 중심의 내실 있는 경영으로 지역 발전은 물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경남 하동군과 전북 완주군을 시범 도입한 결과 성공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2011년 본격 도입한 사업이다.

'모정(母情)한과'는 전통한과를 생산·판매하고, 체험장을 운영해 강진을 알리고, 농산물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마을기업 '모정한과'는 국·도·군

비 5250만원과 자부담 2500만원을 들여 99.62㎡ 규모의 1층 건물로 작업대와 선반 등 22종의 조리도구를 갖췄다. 부녀회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재배 수확한 친환경 쌀과 참깨, 검은콩, 해바라기씨, 아생 모시잎 등을 가지고 모시잎 송편과 강정, 약과 등 한과 선물세트 제작을 시작했다.

김영민 대표는 "앞으로 부녀회원들 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가 합심해 마을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 마을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61-432-4848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전 북

밭 농사 소득보전 직불제 표류

전국 최초 조례제정 해농고 예산부족 3년째 보류

전북도 농민들 반발 거세지자 "내년 시행 방침"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북도의 '밭 농업 소득보전 지원조례(이하 밭 직불금)'가 장기 표류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북도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도는 논농업 직불제에 이어 2008년 밭 직불금 지원 조례를 만든 뒤 준비기간을 거쳐 당초 지난해에 이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부족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무기한 보류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타당성 용역 결과 '도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과 정부가 2013년 도입하려는 비슷한 제도와 상당부분 중복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밭 직불금 도입을 위한 농림사업 통합정보 시스템(agrix) 구축에 10여억 원의 예산과 20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도 그동안 시행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조례 제정 3년이 지나도록 끝없는 밭 직불제에 대한 농민의 반발이 계속되자 도는 올해 예산에 시스템 개발비를 확보, 최근 5개 시·군 농민(5600 농가)을 대상으로 시물례 이션했다. 도는 이 시물례이션 결과를 통해 지원 대상과 단가, 시행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하순께 농민단체, 전문가, 시·군 공무원, 도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10월에는 지원 기준과 단가 등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밭 직불금 지원 대상이 영세 농가로 한정되고 단가도 ha당 2만~4만 원에 그칠 것으로 보여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밭 직불금 조례 제정을 주도한 오은미 도의원은 "밭 직불금 도입은 김완주 도지사의 선거공약이었던 만큼 이만저만 핑계만 대지 말고 당장 시행해야 한다"면서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대상과 단가가 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승구 전북도 농수산식품공장은 "시행 시기와 지원 단가 등을 못박을 수는 없지만, 농민을 위해 가급적 빨리 시행할 것"이라며 "이해 당사자들과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 영세 농민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왕궁 분뇨처리장 준공 지연 책임공방

익산시-시공사 공사 지체싸고 법정다툼 예상

익산시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완공이 늦어지면서 익산시와 시공사 간에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지난 6월 완공 예정이던 분뇨처리장은 당시 수질기준에 미달하면서 아직도 보강공사를 진행하는 상태다. 지난 2008년 12월에 착공한 분뇨처리장은 일일 700t 처리 능력을 갖추고 6월 가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분뇨 200t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질을 맞추지 못해 준공공사를 받지 못했다. 시공사인 B엔지니어링은 이후 추가 설비를 한 후 현재

방류량을 높여가며 수질 검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B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재 처리 용량(일일 700t)의 90%에 달하는 630t을 방류하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서 "이달 말쯤 목표치인 700t을 처리해 수질기준에 충족되면 곧바로 준공공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시공사에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요구하겠다는 견해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최근 계약한 축분 용량을 투입해 어느 정도 수질목

표치를 맞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준공신청서가 들어오면 적법 절차에 따라 허가를 해주되 지체보상금을 업체에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시공사 측에서 이를 거부하면 법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시공사 측은 "처리장의 목표수질을 맞추지 못해 공사가 다소 지연된 것은 우리 책임이지만 저류조(각 축사에서 나온 축분을 모아 두는 곳)가 제때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은 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뉴스 브리핑

전북경찰, 남원 내령마을 교통안전마을로 지정

전북 지방경찰청은 2일 오전 전북 남원시 산내면 내령마을 등 3곳을 '교통안전마을'로 지정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8월 도내 경찰서에서 1차 선정된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남원 내령마을, 완주 비봉면 소농마을, 진안 동향면 대량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교통안전마을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교통량 ▲지역 주민수 자치단체의 교통안전 관심도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됐다. 이번엔 선정된 3곳에는 2000만원의 예산지원과 교통안전 시설 점검, 교통안전 교육, 교통안전 홍보물이 지원된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남원선관위 10·26 재선 부정감시단 발대식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기상)는 10월 26일 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최근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가졌다. 감시단은 금품·향응제공, 공무원 선거관여, 불법 사조적 설치·운영, 불법정치자금 수수, 비방·흑색선전 행위 등 5대 중대선거

범죄에 대한 감시·활동에 나선다. 남원 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려면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국번없이 1390)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김제시 다목적 시설 갖춘 국민체육센터 개관

김제시는 최근 이근식 김제시장과 최규성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도의원, 생활체육인,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체육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김제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48억을 투입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했다.

센터는 건축면적 2934㎡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볼링장, 탁구장, 태권도 연습장, 다목적 체육관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다. 특히 주변에 수변공원과 검산 생활체육공원이 위치해 김제의 또 다른 명소가 될 전망이다. /전북취재본부=홍순선기자 hnews@

조선시대 명필 이삼만 선생 기리는 휘호대회

조선시대 3대 명필로 손꼽히는 창암(蒼巖) 이삼만(1770~1847) 선생을 기리는 휘호대회가 고향인 정읍에서 열린다. 창암 이상만선생 서예술포화 진흥회(이사장 조인숙)는 24일 오후 1시부터 정읍고 강당에서

제4회 창암 기념 대한민국 휘호대회를 연다. 휘호대회에는 누구나 출품할 수 있으며 8일까지 원고를 진흥회에 제출하면 된다. 참가부문은 한글, 한문, 문인화, 장암체다. 문의 (063-533-2878) /전북취재본부=빅기습기자 parkks@

김제 농악·사물놀이 상복터졌네

경연대회 대상 영예 등 전북지역 최고 입증

김제 농악이 최근 국악전 대회

를 휩쓸었다. 6일 김제시에 따르면 김제 덕암 정보고등학교 농악단과 (사)호남우도 김제농악보존회(대표 박동근)이 지난 3~4일 열린 '제30회 전북도 시·군 농악경연대회'에 참가, 각각 최우수상과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덕암정보고 농악단 '한국인'은 화려한 상모놀음과 역동적인 몸짓을 선보여 지난해에 이어 학생부 농악부문 대상(전북도교육감상)을 수상했다. /전북취재본부=홍순선기자 hnews@

또한 사물놀이 부문에서도 우수상(3위·장수군교육지원청장상)을 수상, 명실상부 전북 최고의 학생 농악단임을 입증했다.

(사)호남우도 김제농악보존회는 농악부문 2위에 해당하는 최우수상을 수상, 빠르고 정교한 가락 연주를 바탕으로 그동안 갖고 있던 우수한 기량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얻었다.

그동안 양 단체는 지역 내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적극 참여, 농악보급에 앞장서 왔다. /전북취재본부=홍순선기자 hnews@

'인재 양성의 요람' 임실초등 개교 100돌

임실군 임실초등학교(교장 권기호)가 개교 100돌을 맞았다. 임실초등학교는 9월 개교 100주년을 맞아 기념비 제막식과 임실 백로축제 한마당, 청소년 문화축제 등 선후배 간의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벌인다.

임실초교는 일제 강점기인 1911년 9월 10일 공립 보통학교로 개교해 3학급에 학생 수가 71명에 불과했던 작은 학교였으나 현재까지 1만185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자리잡았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